

초산모의 양육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김 미 종*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에게 있어서 첫 아기의 탄생이란 의미 있는 사건이다. 자신의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바로 자신에게 한 아이의 어머니라는 역할이 추가됨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비 임신시의 상태로 신체가 복원되는 약 6~8주간의 산욕기(하영수, 이경혜, 1991)는 새롭게 추가되는 역할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초산모에게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시기인데 이는 자신의 신체적 회복경험과 더불어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갖고 책임지고 양육해야 할 과업을 가진 모성의 역할을 가지기 때문이다(고효정, 1994).

대가족 속에서 많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습을 접하면서 자라던 과거와는 달리,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주류를 이루는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내에 뚜렷한 역할 모델이 없기 때문에 초산모는 자신의 모성 역할에 대한 불안감과 당혹감

을 가질 수 있다. 어머니 역할은 직관적인 여성 기능이 아닌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극-반응의 복합적인 사회적, 인지적 과정이므로 임신중이나 산욕기에 필요한 자가간호와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곽연희, 1996).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어머니가 될 대부분의 여성은 어머니가 되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에 대해 기술적, 심리적, 발달적으로 미숙하고 불안해한다. 또한 자신의 존재와 어머니라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역할을 통합해야 하는 산욕기에는 산모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으로 관찰된다(이영은, 1992). 그 결과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역할수행에서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되므로(이혜경, 1992) 산욕기 산모들의 양육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초산모의 양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모성역할의 측면에서 역할긴장이나 역할 획득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관련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양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또한 질적 연구도 현상에 대한 기술적인 단계를 넘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어서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에 의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ogan et al., 1997). 특히 임신, 출산, 양육의 현상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이므로 우리 사회문화의 맥락을 반영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육기에 있는 초산모들의 적응과정을 이해하고 근거이론을 도출함으로써 초산모가 당면하고 있는 적응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기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산모가 겪는 양육적응과정 에 대한 심층경험을 파악하여 그 의미체계를 밝힘으로써 근거이론을 구축하는 것이다.

- 1) 초산모가 겪는 심층적인 양육경험을 파악하여 그 의미 및 구조를 서술한다.
- 2) 초산모의 양육 적응과정에 대한 실체이론을 개발한다.

II. 문헌고찰

1. 산육기 모성으로서의 적응

초산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종류를 살펴보면 어머니 스스로의 신체적 불편감, 정서적 불안전, 가족관계, 아기양육이고(이경혜, 1982), Ventura (1987)는 부모가 됨으로써 이러한 역할들로 인한 요구, 아기 돌보기, 배우자와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으며, Mckim(1987)은 194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자신에게 남편에게 아이에게 있었던 일을 묻은 결과 아기질병, 아기영양, 아기울음, 필요한 정보 구하기, 부모문제, 선천성 기형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중 가장 으뜸

이 되는 문제는 아기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였다.

원정선(1990)은 부모의 성별에 따라 첫 부모됨의 어려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 측에서는 아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의 증가, 배우자의 아기에 대한 너무 많은 관심, 육체적 지침과 피곤함, 자신의 몸매 잃는 것에 대한 염려, 식사시간의 제한, 수면 휴식시간 방해, 집안정돈 방해, 아기 때문에 친한 친구와 만나지 못함, 아기가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감소시켰다는 순서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어머니 역할시 아기와 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점은 아기 때문에 잠자리에 든 후 잠을 못 이루는 것, 그리고 아기 때문에 부부의 계획이 바뀌고, 밤에 수유하는 일, 목욕시키기, 돈 문제를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順이었다. 산육기는 초산모가 건강회복을 위해 적절한 안정과 휴식을 필요로 하며 자기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자가간호 능력을 증진하고, 어머니 역할을 성공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2. 모성역할

역할이란 개념은 여러 학문에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통일적인 역할개념으로 정의 내리기 힘들다. 역할이론에는 두 가지 뚜렷한 이론적인 전통이 있다. 구조주의적인 전통에 의하면 역할은 문화에서 나온 처방으로 간주한다. 개인들은 어떤 지위에서 사회적으로 할당받은 일이 있고 어떤 규정적으로 정의된 행위를 지위에 따라 기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이 지위에 다른 의무를 수행했을 때 개인은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상호주의적 전통에 의하면 역할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에서 나온 규율로 인식한다. 역할은 상호 호혜적인 역할과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어 역할 상대자를 변경시키고 역할 상대자의 역할 행위를 타당하게 한다.

(고효정, 1994; 김소야자, 1995).

어머니 역할이란 출산을 통해서 어머니가 된 사람에게 기대되는 일련의 행동으로 모아관계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정의적, 속성 및 일련의 양육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영은, 1992). 그런데 어머니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혹은 기계적인 측면에서의 양육 행동과 정서적 측면에서의 양육행동이 조화되어야 한다. 실제적 혹은 기계적 측면에서의 양육 행동은 인지적 및 근육운동 기술로서 수유, 안아주기, 옷 입히기, 닦아주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그리고 영아의 발달 과정 및 영아행동에 대한 이해와 같은 과업 중심적 활동은 영아가 출생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과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학습에 의해 획득되어진다.

어머니 역할은 학습을 통해 획득되어지는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확립이며(Rubin, 1967; 오윤희, 1994에서 재인용), 어머니 역할 획득은 그 정체감에 알맞은 행동을 통합시켜 어머니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Mercer 1981)이며,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는 어머니 역할획득과 조정에 중요한 요인들이다(Bobak & Jesen 1995). 더욱이 산욕초기 초산모는 산후 회복을 위해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존상태에 있으므로 다른 시기보다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이혜란, 1984). 따라서 산욕기는 초산모에게 모성역할로의 전환과정 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임을 알 수 있다(이혜경, 1992).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초산모의 양육경험에 대한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근거이론적 연구이다.

1.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연구의 주제에 대해서는 석사논문을 쓰면서 산욕기 대상자에게 모유에 관한 교육을 주었던 경험, 산욕병동에서 간호학생들의 실습을 지도한 4년간의 경험, 그리고 면담자 자신의 임신, 출산과 산욕의 경험 등으로 산욕기에 있는 대상자에게 자신감 있게 접근 할 수 있었다.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수강하였으며 근거이론적 방법의 연구문헌을 많이 읽고, 질적연구 workshop에 참여하기도 하여 이론적 민감성을 높였다. 자료수집동안에도 지속적인 문헌고찰을 통하여 이론적인 민감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4명의 초임부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26세~32세였으며, 분만 10일 후, 1개월 후, 2개월 후, 3개월 후에 있는 대상자였다.

대상자 ㉠와는 면담자가 같은 동호회의 일원으로 우연히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기록한 일기형식의 대상자의 글을 읽게 되었고, 간호가 필요한 그 현상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었기에 대상자로 선택하였다. 32세이며 정상분만 하였고 모유수유하고 있었으며 면담당시는 산후 2개월이었다. 또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었으며 산욕기가 기간이 끝나면 직장생활을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주말부부로서 남편과 일주일에 한번씩 만났고 친정이 가까이 있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산후 1개월 된 대상자 ㉡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면담하게 되었다. 28세 전업주부로서 초등학교를 집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아기를 낳아 잠시 쉬는 중이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였고 인공수유만을 하고 있었다. 남편은 전공의로 2~3일에 한번씩 밤늦게 들어오며 친정이나 시댁은 지역적으

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대상자 ㉔ 역시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되었으며 27세였다. 정상분만으로 아기 낳은 지 열흘되었고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다. 교원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가 분만으로 인해 쉬고 있는 상황이었다.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친정이나 시댁은 지방에 있어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자 ㉕는 연구자의 이웃 주민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으며 26세였다. 분만한 지 3개월이 되었으며 정상분만으로 아기를 낳았다. 모유수유를 시도하였으나 아기가 엄마 젖을 빨지 않아 실패하고 현재 분유를 먹이고 있다. 친정언니가 가까이에 살고 있어 자주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남편은 대학원생이며, 대상자가 출산 후 아침마다 수영을 다니도록 격려하고 그동안 아이를 돌보아 준다고 한다. 대상자는 남편으로부터 비교적 만족스러운 정도의 심리적, 정신적, 시간적인 배려와 지원을 받고 있는 편으로 스스로 평가하였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비지시적 심층면담 방법을 통해 자료수집하였다. 먼저 대상자들에게 전화로 면담의 취지를 밝히고 협조를 요청한 후, 이들의 허락을 받아 면담자료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면담내용을 녹음한 후 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면담시간은 30분~50분 정도로 하였으며 면담장소는 모두 각 대상자의 집으로 정하였다. 면담시 현장노트는 면담준비 과정, 면담의 진행 중, 그리고 면담 후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용하였다.

현장 노트의 내용으로는 첫째, 면담에 앞서 잊지 말아야 할 내용 즉,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녹음을 허락 받는 일, 면담시간이 얼마

나 허락되는지 종료 시간을 의논하는 일, 면담 중 원하지 않을 때 면담을 그만 둘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일등을 잊지 않도록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둘째, 면담 과정동안 대상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느낌은 대상자의 말 가운데 중요한 단어만 쓰고 그 옆에 기록하였다. 면담에 앞서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였으며 처음질문으로는 주로 "아이를 키우는 경험을 이야기 해주십시오"라고 개방적인 질문을 하였다.

이전 면담에서 확실하지 않았던 내용은 메모하여 다음 면담에서 확인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추출되지 않는 포화에 이를 때까지 면담을 계속하였다.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자료의 분석방법은 Strauss & Corbin (1990)의 근거이론적 분석법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단계는 첫째,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고, 비교 검토하여 개념화하고 비슷한 개념끼리 묶어서 범주화하였다. 둘째, 각 범주와 하위범주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인과적인 상황, 현상, 맥락, 중재상황,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등 근거이론의 틀에 따라 분석하고 각 범주간의 관계를 연결 시켰다. 셋째, 마지막으로 핵심 범주를 선택하여 일정한 과정을 발견하여 자료의 체계화 및 연관성을 강화하였다.

IV. 연구결과

1. 초산모의 양육경험

1) 아기의 불편한 신체상태로 힘들

초산모들은 아기의 상태의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아기가 불편해 하면 그 문제

를 해결하려는 반응보다 상황 자체를 걱정하거나 힘들어하는 정서적인 반응을 먼저 보였다.

며칠 전부터 애가 아픈데, 애가 아프니까 막속이 상하고 우울증이라기보다는 너무 걱정이 되니까 굉장이 힘이 들고 그런 게 있어요.

태어나서는 한 2-3주 정도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애가 똥을 얼마나 누어야 하는지 그런거 별로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데 거의 하루에 한 두번 정도 똥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3주정도 되는 때부터 하루에 한 번 정도 누더니 이틀에 한번 누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한 달쯤 똥을 때 5일 동안 안 누더라구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틀에 한번 사흘에 한번 그래요. 똥 문제 그랬구. 하여튼 쫓-(혀차는 소리) 애가 어디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제일 힘들어요.

2) 막막함

초산모들은 아기를 다루는 데 있어 미숙하였다. 아기 엄마로써 열심히 돌보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속상해 하거나 막막해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였다.

저는 처음부터 모유 먹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어나서 이삼일동안 분유를 먹이고 그리고 나서는 젖몸살 한창 막할 때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일주일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어쨌든 우유를 좀 먹여보려고 그러다가 아기는 계속 토하고 .. 아 정말....

막막하다는 느낌이 막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음- 쫓(혀차는 소리)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애가 아프고 그럴 땐. 속상해하고

저는 모유먹일 건데도 그냥 다 우유 먹이는 건 줄 알고 타 먹였거든요. 그거를 이삼일 정도 먹이고 나서 딴 사람들 보니까 다 젖을 물리고 있더라

군요. 거기 있던 초산모 아닌거 같은 나이 많아 보이는 아줌마에게 언제부터 먹이면 되요 그랬더니 안 먹이고 뭐해요. 그러잖아요.

3) 고립된 느낌과 숨막힘

초산모들은 아기와 일상을 함께 하는 동안 아기의 상태에 모든 것을 맞추기 때문에 생활에서 여유를 가지 못했다. 아기의 리듬에 맞추어진 자신의 생활을 아기에 게 묶여있는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세상에서 활동하며 살던 자신이 외부세상과 고립됨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 자체가 육아기간동안 정지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기엄마가 된 후 저에게는 있어서는 아기를 키우는 문제보다 아기가 있어서 내 활동을 못한다는 것 그런 스트레스. 외출도 못하고 묶이는 느낌 그런게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24시간 애를 보고 지켜 봐주어야 한다는 게 그 뉘얼까 ---- 음 ---- (잠시 침묵하고 생각함) 대기한다고 할까 맞아 맞아(고개를 끄덕이며) 『대기한다』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기 옆에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한편으로는 숨막히게 해요.

항상 긴장상태에 있어야 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옆에서 있어야 하고 애기가 깨면 하던 것 모두 중지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그런 것 생각하면 앞날이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 이틀 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애기 다 키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아직 나는 할 것이 많은데 앞으로 내 인생의 한 두해는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거죠.

4) 지지체계 활용하기

초산모들은 혼자서 아기 양육을 하기 힘들므로 인해 주변 지지체계를 활용하려고 하였다. 지지체계가 친정

식구들인 경우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아기 돌보는 일까지 도와주므로 가족의 지지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표현을 하였다. 그러나 지지체계가 남편만 있는 경우 남편의 지지가 지속적이지 않고, 일상의 많은 면을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의 지지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주변 이웃의 도움도 친정식구나 남편의 지지만큼 가깝게 생각하지 않고 응급상황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밥하고 빨래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해요. 엄마가 다하구요. 엄마는 기본적인 작업들. 밥하고 애 옷 빨고 애 목욕시킬 때 청소하고 이런 것들 다해주고 일상생활 의식주 같은 건 엄마가 다 해주고 애기 목욕 시킬때 힘드는 거 있잖아요 병원 갈 때 애기 안고 가거나 그런 것들은 여동생이 거의 도와줘요.

저번에 남편이 똥 기저귀 갈면서 그러더라고요. 똥 기저귀 가는 남자가 있는 줄 아냐구요.

집안 일은 손도 까딱하지 않는 편이에요(어색한 웃음). 집에 좀 일찍 들어오면 좋겠는데 집에 오는 날도 거의 늦게 오니까 아빠의 도움은 거의 기대하지 않아요.

남편친구네 집이 앞동에 있는데 아주 급할때야 도움을 주겠지만 다 자기들 일이 바쁘니까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귀찮고 그래서 왕래는 없이 그냥 각자 사는 편이지요.

5) 양육방식에서 갈등을 느낌

초산모들은 자신이 아기 양육에 있어 주도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지체계와의 양육 방법 차이는 초산모로 하여금 갈등을 느끼게 하였다. 초산모는 아기 양육에 있어 전반적인 미숙함으로 인해 양육의 주도권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대리양육자에 대한 미더움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엄마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것하고 감이 다를 것 같아요. ... 예를 들어서 애가 똥을 못 뉘서 그게 나는 막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엄마는 뭐 애들이 다-아 그런다 그러고. 어른들은 오랜 경험 속에서 지나가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힘들구요.

애가 배가 조금 고프면 그냥 징얼거리는데 많이 고프면 막 울잖아요. 그걸 우리 신랑이 보다가 막 짜증내면서 애가 신경질적이 된다고 빨리 주지 않고 뭐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상황에 애 먹었던 사이클로 봐서 애가 그렇게 많이 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울어가지고 저는 그게 잠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부러 천천히 했는데 애기가 우니까 남편이 막 그러잖아요.

아기를 맡기고 나갔다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챙기는 것하고 정말 틀리잖아요. 아줌마는 우유먹이고 선잠 들었을 때 트림시키고 그냥 눕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토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있을 때는 별로 토하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 속상했어요. 제일 힘들었던게 저 애놓고 몸 아프고 그런게 아니라 산후조리하면서 애한테 빨리 빨리 능숙하게 해주지 못하고 그랬던 것...

6) 어머니됨을 느낌

초산모들은 자신이 아기 엄마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않고 주변에서 자신을 한 아이의 엄마로 호칭할 때도 자신을 부르는 것 인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아기와 나누는 교감을 통해, 그리고 아기를 우선시 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어머니"임을 느끼고 있었다.

아기낳고 처음에 친구가 장난처럼 얘기엄마 그

러더라구요. 저는 저 아닌지 알았어요.

느낌 생소하고 느낌이 이상해요. 나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내가 애기 엄마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으면서 그냥 어리둥절 하기도 하고 ...

온 식구가 밥을 먹거나 할 때 아기가 깨서 울거나 칭얼거리는 소리가 나면 식구들은 마저 먹고 가라고 하는데 그냥 손가락 딱 내려놓고 가게 돼요. 그럴 때 (엄마라는 게) 느껴져요.

7) 편안해짐

초산모는 아기를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최선을 다하였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책을 찾아보거나 주변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해결하고, 혼자 아기를 돌보는 경험자들을 보며 용기를 얻기도 하였다. 또한 성장과정시에 겪었던 간접 양육경험을 떠올리며 양육에 자신감을 갖기도 하였다.

주위에서 저보다 두어 달 먼저 아기 낳은 친한 분이 있는데 혼자 다 잘 해가더라구요. 그런거 보면 용기가 나요. 남편 도움 받아가면서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라면서 조카들을 거의 키우다 시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애를 직접 다루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게 사실이에요. 애 목욕시키거나 수유하는데 있어서 겁내하지 않고 서슴없이 하는거 있잖아요.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올케언니가 저보다 딱 일년 전에 출산했기 때문에 올케언니에게 많이 물어보고 그래요. 주로 책을 보거나 그런 거 밖에는 없지요. 지금은 최선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8) 좌절감 느낌

초산모는 아기 양육과정 동안 자신이 아기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닌 것 같이 느꼈다. 아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는 사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주변 지지체계가 해결해 줄 경우 좌절감을 경험하였다.

감기든 것 만 해도 왜 감기가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젖먹이는 애들은 한 6개월 정도는 면역기능이 있어서 감기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걸렸을까, 방이 추운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방을 청소를 안 해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정말 자신이 없어요. 뭐 얘기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이 지나면 아 정말 확실히 무엇이 문제여 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구나 이걸 딱딱 깨닫고 확인을 하고 지나가는게 아니라 그냥 어찌다 보니까 나온거고 엄마아빠가 해결해줘서 지나가고 계속 그러거든요.

2.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초산모의 양육적응 과정분석

초산모의 양육에 대한 경험은 “막막함”이라는 중심현상으로 도출되었다. 초산모의 양육적응 과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양육의 경험을 처음으로 겪는 초산모는 아이의 불편한 신체 상태를 돌보며 힘들어 하게되고 아이의 이러한 문제를 어설뜨거나 미숙하게 다루면서 양육에 대한 준비되지 않은 자신을 깨닫게 된다. 양육경험의 초기단계에서의 비효율적인 대응으로 인해 양육의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며 이 느낌과 경험은 ‘막막함’이라는 중심현상으로 부상하게 된다. 더불어 자신이 아이에 대해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해주어야할 존재인 어머니라는 역할을 가짐을 깨닫고 양육의 굴레에 매인 느낌을 가지게 된다. 초산모들을 도와주는 가족이나 남편의 지지가 강력하고, 과거 간접양육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양육경험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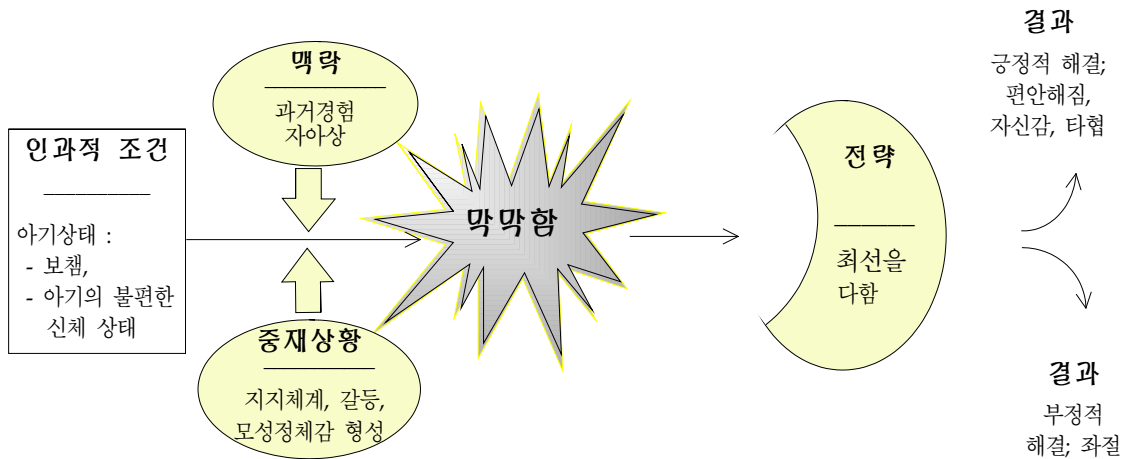
〈표 1〉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초산모의 양육적 과정분석

개 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밤새움. 잠투정. 토함. 배변곤란. 복부팽만. 수유곤란. 아픔. 울음. 발버둥. 자지러짐. 보챌.	불편한 신체상태 보챌	아기상태	인과적 조건: 아기상태
수면부족. 흥분상태. 불면증. 힘들. 병 언음(손목). 긴장, 여유없음 혼비백산. 놀람. 진정 안됨 (아기에)즉각반응. 대기함. 옆에 있어주어야 함. 굴레. 짐, 혼자 책임짐 어설피름, 미숙함, 무력감, 준비안됨, 모름 미안함. 속상함 후회, 기대에 불만족. 자신감 결여, 자신감 저하 두려워함. 노심초사. 걱정, 엄두나지 않음. 막막한 느낌	힘듦 당황함 대기함 부담감 미숙함 속상함 자신감 저하 막막한 느낌	고됨 막막함	중심현상: 막막함
숨막힘. 묶임. 외로움 아기 위주. 서운함, 야속함, 울음. 미움 장기적인 일. (인생의) 정지감.	고립감 서운함 정지감	고립감	
순산, 분만 진통 못 견뎌, 성장과정에서 양육에 대한 간접경험 신체상 변화	출산경험 간접 양육경험 변화된 자아상	과거 경험 자아상	맥락 : 과거경험 자아상
가족의 지지 남편의 지지 이해받지 못함. 기대안함. 남편의 지지부족 주변의 지지부족 친정 어머니와의 양육방법 갈등 남편과의 양육방법 갈등 (대리양육자에 대한) 불안, 불신 생소함. 나감지 않음. 무감함. 대화 부족	건고한 지지체계 지지체계 결여 양육 갈등 어머니됨을 못느낌	지지체계 갈등 모성정체감 부족	중재상황 : 지지체계, 갈등, 모성정체감 부족
원하던 성별. 아이에 대한 사랑. 가족들이 기뻐함. 닳음. 아기를 보면 우리남, 소중함, 귀함. 대화나눔 전화함/ 책 봄, 선경험자 모방 (아기를 위해)식사에 노력, 대안모색	모성에 촉진 양육태도 습득 노력함.	최선을 다함	전략 : 최선을 다함
불면증 해결 용기가 남. 할 수 있음. 겁내지 않음. 서슴없음 계획의 조정, 대리양육자 도움 아기에게 도움안됨. 대책없음. 좌절감	편안해짐 자신감 타협 좌절	긍정적 해결 부정적해결	결과: 긍정적 해결 부정적 해결

을 거치게 되어 양육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고
편안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초산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지체계가 빈약하거나, 초산
모가 수행한 양육행위가 아기에게 도움이 되어주
지 못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면 양육에 대한 좌절
감을 경험하게 되며 부정적 적응과정으로 귀결

되게 된다.

『초산모의 양육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의 전개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초산모의 양육경험』의 전개과정(conditional path)

초산모들이 출산 후 아이양육에 직면해서 경험해 가는 과정을 『막막함』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막막함』의 생성

초산모들은 아이를 낳고 자신이 어머니가 되었다는 처음에는 실감하지 못하고 아이의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다루어야 할지 걱정하며 자기 자신이나 양육대리자의 미숙한 양육의 태도에 힘들어 하게 된다. 이때 막막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2) 『막막함』의 발전

아기의 상태가 육아서적이나 경험자로부터 들어왔던 상태와 벗어난 경우 놀라거나 당황하게 되고 자신이 미숙하거나 준비가 안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는 자존감이 저하되거나 아기에게는 미안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심하게 발전되는 경우에는 예민해지고 진정이 안 되기도 한다.

아기의 양육에 하루종일 24시간 대기하고 아기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는 아기위주의 생활이 지속되면서 초산모는 고된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직면

하게 된다. 양육의 어려움을 점점 더 경험하게 초산모는 육아의 과정이 단기간 해결을 모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결부시키게되고 자신의 고립되는 느낌, 자신의 삶의 계획이 중단되는 느낌을 가지게된다.

3) 『막막함』의 갈등표현

막막함은 아직 육아의 기술이나 태도에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가 가족이나 대리 양육자와 의견이 달랐을 때 예민하게 대립되어 갈등의 현상이 빚어지게 되며 대상자는 불신감이나 불안감을 갖게되고 울거나 긴장하고 예민해져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등 신체증상까지 경험하게 된다. 남편이나 친정 부모님 등 지지체계가 강할수록 갈등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지만 지지체계가 없거나 약한 경우 이러한 갈등의 현상은 더욱 악화되고 아기와 눈맞춤이나 대화를 기피하는 등 모성애 형성에 장애를 주게된다.

4) 『막막함』의 갈등해소 - 해결

초산모는 가족들이나 남편이 아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기뻐하고 아기와 대화도 나눔으로서 자신이 비로소 어머니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양육 과정에서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선경험자나 육아서적을 찾아봄으로써 최선의 답을 구하기 위해 애쓰며 아기를 위해 식사를 더 많이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또한 대상자는 자신의 미래의 대한 계획을 수정하거나 주변의 지지체계를 이용하여 병행하려하는 등 타협하거나 대안모색을 하게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막막함의 현상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해결되는데 때로는 아이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여 좌절하기도 한다.

V. 논 의

첫 아이를 분만한 초산모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걱정은 Ventura(1987)와 Mckim(1987)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기질병, 아기영양, 아기울음, 필요한 정보 구하기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게서도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이 문제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감, 정서적 불안전,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들은 손목에 병을 얻음, 긴장, 여유없음 등을 호소하고 있었고 기저귀 갈기나 아이 돌보기 등으로 초산모의 대부분에서 수면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막막함의 생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아기의 상태가 중요하게 파악되었던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초산모의 양육경험은 어머니가 되어가는 경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어머니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혹은 기계적인 측면에서의 양육 행동과 정서적 측면에서의 양육행동이 조화되어야 한다(이영은, 1992). 실제적 혹은 기계적 측면에서의 양육 행동은 인지적

및 근육운동 기술로서 수유, 안아주기, 옷 입히기, 닦아주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그리고 영아의 발달과정 및 영아행동에 대한 이해와 같은 과업 중심적 활동은 영아가 출생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과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학습에 의해 획득되어진다.

산욕초기는 산모 자신의 출산후 신체적 회복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자가간호의 과업을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로서의 역할획득에 따른 양육의 과업을 처음으로 습득하는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해 볼 때, 초산모와 아기가 긍정적인 경험으로 첫 양육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오윤희, 1994에서 재인용; 이혜경, 1992; Mercer 1981; 이혜란, 1984; Bobak & Jesen 1995). 첫 양육과정에서 긍정적인 적응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하며 양육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없애고 편안하게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산전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초산모들은 이러한 아이 양육의 어려움과 이에 응하지 못함에 대한 좌절감과 자신감 결여를 보이는 경우 많다. 이때 태어난 아이를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은 새롭게 부여된 모성이라는 역할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양육경험을 하는 촉매의 역할을 한다. 즉, 초산모들은 모성이라는 역할을 자신과 결부시키고 아기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이나 시부모 친정 부모 등의 지지체계가 있는 경우 비교적 빠르게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찾고 모성역할을 수행하며 안정되고 긍정적인 양육경험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지지체계는 초산모의 양육경험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지체계와는 상관없이 분만 후 짧은 기간동안 초산모들은 자신이 아이에 대한 일차적 독립적 책임자라는 강한 책임감을 갖

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책임감과 자신의 실행능력사이의 차이(gap)에서 『막막함』을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개된 일련의 과정은 산육기 초산모의 적응과정에서의 선행연구결과(이혜경, 1992; 박영숙, 1991; Mckim, 1987; Mercer 1981)와 일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산모의 양육경험을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인인 간호사들의 예방적인 교육과 적시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산전 산후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독자적인 간호가 미비하고 의사에 의한 관리가 의학적 관리가 주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정상분만을 한 산모가 분만 후 2-3일에 퇴원을 하게되는 상황에서 산육 초기에 어머니의 역할이나 어려움에 대해 대상자를 준비시키고 있는지 의문시된다. 최근 다행스럽게도 가정 간호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산육기 초산모의 어머니의 양육 경험을 확인하고 이론화하는 것은 모성영역에서 산육기 교육과 준비에 대해 재고하게 하고 이론적인 바탕을 마련해주므로 이론개발로 인한 간호지식체의 확장뿐만 아니라, 간호학 실무 발전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산육기에 있는 초산모의 양육경험이 근거이론적 접근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임신, 출산, 양육의 현상은 특히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이므로 우리 문화적 맥락에서의 초산모의 양육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출산 후 10일에서 3개월 이내인 초산모 4명이었고 심층면접을 하였다. 면담과정은 대상자의 허락 하에 녹음하여 필사과정을 거쳐 분

석되었다.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막막함』이 추출되었다. 막막함이란 첫 아기를 둔 초산모가 경험하는 핵심 개념으로 아이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혼동스러움, 능숙하게 아이를 다루지 못하는 죄책감과 무능함, 그리고 고됨을 그 특징으로 한다. 산육초기에 있는 초산모는 아이의 양육에 대해 처음에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이를 다루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양육의 기술을 습득하고 어머니로서의 태도를 가지며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게 된다. 초산모들은 자신이 어머니가 되었다는 처음에는 실감하지 못하다가 아이의 상태에 대해 당황하고 양육을 제공하면서 힘들어하게 되고 막막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아기위주의 생활이 지속되면서 초산모는 고된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자신과 다른 양육 태도를 가진 사람과 같등으로 인해 막막함의 현상은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모성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지지체계를 활용하고 모성애를 유발시키는 본능적 학습적 과정 등의 전략을 통해 양육과정에서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게 되고 막막함의 현상을 해결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초산모의 양육과정은 막막함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악화되기도 하고, 가족의 지지와 모성정체성을 찾아감으로서 일정시일이 지난 후 해결되어 가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산모의 양육 과정 단계에 맞춘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산전관리 시기부터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양육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산모가 양육 경험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이론을 좀 더 세련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초산모 양육 교육안 개발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곽연희 (1996). 산모 교육의 효과 측정 : 산육기 자가간호와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정도와 자신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효정 (1994). 취업초산모의 역할 긴장과 대처 및 지지에 대한 고찰. 중앙의학, 59(12). 999-1013.
- 김소야자 (1995). 역할이론. 간호학 탐구, 4(1). 71-93.
- 김수지, 신경림 역 (1996). 안젤름 스트라우스, 줄리에트 코빈 지음. 근거이론의 이해. 한울 아카데미 : 서울.
- 박영숙 (1991). 산육기 초산모의 모성전환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경림 역 (1997). 제니스 M. 모스 & 페기엔 필드 지음. 질적 간호연구 방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서울.
- 오윤희 (1994). 제왕절개술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원정선 (1990). 부모 됨의 전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혜 (1982). 산육기 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2(2). 67-78.
- 이영은 (1992). 산육기 초산모의 간호목표 달성 합의가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혜란 (1984). 부모역할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및 만족도 분석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혜경 (1992). 산육기 초산모의 모성역할 획득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애규 (1994). 산후 모성적응 에 대한 자기평가. 포항서린전문대 논문집, 14집. 33-55.
- 하영수, 이경혜 (1991). 모성 및 부인 간호학. 서울 : 신광출판사.
- 하영수, 김신정, 정금희 (1990). 어머니 역할 획득 과정에서 인지된 스트레스와 건강양식 이행과의 관계. 간호과학. 이화여자 대학교 간호학 연구소. 23-47.
- Bobak. I. M., Lowdermilk, D. L. & Jesen, M. D. (1995). Maternity Nursing, 4th(Ed). Mosby: St. Louis.
- Mckim, M. K. (1987). Transition to what? New parents' problems in the first year. Family relations, 36. 22-25.
- Mercer, R. T. (1981). The nurse of maternal tasks of early postpartum. Am. J. of Child Nursing, 6. 345.
- Sethi, S. (1994). The dialectic in becoming a mother: experiencing the postpartum phenomenon. Univ. of Colorado Health science center. 214.
- Strauss, A.&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inc.: Newbury Park.
- Rogan, F., Shmied, V., Barclay, L., Everitt, L. & Wyllie, A. (1997). Becoming a mother-developing of early motherhood. J. of Advanced Nursing, 25. 877-885.
- Ventura, J. N. (1987). Parents coping. A relication. Nursing Research, 35(2). 77-80.

ABSTRACT

Key Words : Primipara, Bringing-up, Grounded theory.

A Grounded Approach to Bringing up experiences in Mothers who have the first baby

Kim, Mi J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bringing-up process of mothers with first baby in the context of Korean culture. The field survey was performed with four primiparae during four months from September, 2000 and grounded theory approach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27 primary categories and 12 secondary categories. Unclearness was extracted as an expression of the core category of bringing-up process. The subjects was faced with care of their baby after delivery and experienced formation and deepening of unclearness. After that, they also went through expression and disentanglement of complication caused by unclearness.

It is found that the core concept of this study, the unclearness("Magmagham" in Korean) means a confusion, a burden, a helplessness and a hardness. New mothers make an effort to

resolve this situation with strong motherhood in their mind. By supports from significant others, they are empowered and some mothers get depressive feeling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contributed for nurses to understand new mothers in developmental crisis. We suggested that the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including learning baby care skills and preparing emotionally a motherhood must be given new mother during pregnancy period.

*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